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http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유전개발과장 전민영, 김승태 사무관(2110-5509)	

박영준 차관, 한-베네수엘라 미래협력증진을 위한 양국간 새로운 전기 마련

► **한국 고위인사로는 사상처음 아르헤니스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(現 차베스대통령 6형제중 3남) 면담, 주택건설, 전력 분야에 한국기업 참여 제의 받아**
► **제3차 한-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원회 성공적 개최**
- **SK건설과 PDVSA E&C간 후닌 프로젝트 업무협약(1.5억불) 체결**
- **세계 최대 초중질유 매장지역 오리노코 및 마리스칼 수크레 가스전 참여 모색**
- **정유공장건설(40억불), 가스생산설비 프로젝트(60억불) 등 기존 논의중인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양국의 공조체제 강화 합의**
► **차베스 에너지차관 면담시, 석유화학 공장 설립에 한국기업 참여 합의**

□ **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**은 '11.5.1(일)~2(월) 양일 간 멕시코, 콜롬비아에 이어 **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방문**하여, **석유가스** 및 **인프라 주택·전력**분야 등 **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**함

1. 아르헤니스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면담

□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**한국 고위급 인사로는 사상 처음**으로 주택, 전력 등 국가현안 문제를 담당하는 **현 정부의 최고 실세중 한 명으로 現 차베스 대통령 6형제중 3남인 아르헤니스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을 면담**하고

○ **지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, 양국간 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**해야 한다고 강조하며,

○ 미래를 함께 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간 관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, **양국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**함

□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은 주택과 전력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로서, **빠른 시일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, 산업 스펙트럼이 다양한 한국에 많은 관심을 표명**하며,

○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벤치마킹하여 **향후 5~7년내에 주택 200만호 건설과 전력문제를 해결할 계획**이며, **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**한다고 밝힘

○ 아울러, 차베스 위원장은 관련 프로젝트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조만간 한국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

* **아르헤니스 차베스**는 **차베스대통령의 6형제 3남**으로, 맏형 아단 차베스(現 바리나스 주지사)와 함께 정치활동을 많이 하는 인물이며 **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**

* 대통령위원회는 장관급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택·전력 등 정부 주요현안에 대해 **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성격**임

□ 차베스 위원장이 한국정부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제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**베네수엘라의 한국에 대한 협력의지가 높아지는 등 양국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계기로 평가**

2. 제3차 한-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

□ 5.2일(일) 오전, 양국은 **제3차 한-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**(양국대표단 40명 참여)을 개최하고, **경제·자원 협력방향,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플랜트 사업 진출 방안**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

○ 현대건설(Puerto La Cruz 정유공장(25억불), Santa Ines 정유공장(15억불)), GS건설(동북부 가스생산설비 프로젝트(60억불)) 등 우리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**양국정부가 긴밀히 협조**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

○ 특히, '**후닌 프로젝트 업무협약**(SK건설↔PDVSA E&C, 1.5억불)'을 **체결**하여, **양국이 인프라와 자원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기**를 마련함

* 후닌 프로젝트(Junin Early Production Project) : 산디에고와 호세 산업단지간 초중질유 저장탱크 및 펌프설치 사업(1.5억불)

○ 금번 계약을 계기로 정유공장,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에 **한국 건설·플랜트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**됨

○ 아울러, **세계 최대의 초중질유 매장지역인 오리노코 벨트(2,720억배럴) 및 마리스칼 수크레 가스전(14.1Tcf)**에 석유공사·가스공사의 면밀한 검토와 양국간 공동연구를 거쳐 사업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합의함

3. 기타 고위급 면담

가. 에너지석유부 차관 면담

□ 박영준 차관은 아스드루발 차베스 에너지석유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간 **경제·자원, 플랜트·SOC 분야 협력 등 양국간 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**함

○ 차베스 에너지석유부 차관은 한국을 그 동안 두번 방문,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, **금번 박영준 차관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한다고 밝힘**

○ 아울러, **석유화학 공장 신규 건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,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**

□ 박차관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인프라 사업을 연계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, **석유화학공장 설립을 위한 실사단을 구성하여 귀국 즉시 파견하겠다고 밝힘**

나. 전력부 장관 면담

□ 박영준 차관은 아라케 전력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경제·산업 협력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**전력분야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언급**

○ 아라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송배전 손실률이 34%에 달해 4% 손실률을 보유한 한국은 우리의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, **현재 부족한 2만 메가와트 전력, 송배전·전력판매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함을 밝힘**

○ 또한, **전력분야 인력양성, 전력 R&D센터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 모색을 위해 방한을 희망**하며,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

□ 이에 대해 박차관은 베네수엘라 전력 R&D센터지원을 위해 우리측의 기술전수,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, **한국 방문시 지경부, 전력부간 포괄적 협력 MOU 체결을 제안함**

다. 기초산업광물부 차관 면담

□ 박영준 차관은 헤수스 엔리케 빠레데스 로살레스 기초산업광물부 차관을 만나 **포스코건설이 추진중인 스테인레스 일관제철소 사업(15억불)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**함

○ 빠레데스 장관이 제안한 광물자원과 제철소 건설간 패키지딜에 **포스코건설 및 광물자원공사와 기초산업광물부간에 실무 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제의**

□ 또한, 박차관과 빠레데스 장관은 **자원뿐만 아니라 산업분야까지 협력범위를 확대**하여 **신규사업 발굴 등 상호 협력**하는데 뜻을 같이함

4.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

□ 초중질유 포함시 세계 1위 석유매장량 등 풍부한 자원, 주택·전력 인프라사업의 활성화 등 **베네수엘라는 우리와의 미래협력 촉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전망**

○ 금번 박영준 차관 방문을 통해 **기존 사업외에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청받는 등 차베스 대통령 방한 무산 이후 냉각되어 있던 양국관계가 새롭게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전기를 마련**

○ 특히, **SK건설 사업계약을 계기**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**한국 건설·플랜트 기업들의 사업진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**

○ 석유·가스 분야에서도 베네수엘라와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**자원확보 측면에서도 소기 성과를 달성**

○ 또한, **전력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제안**으로 향후 **전통적 발전 분야 사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**함

□ 향후, 지경부는 정유·제철소건설 등 **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,**

○ **석유화학 공장 설립, 전력 R&D센터, 대규모 주택사업 등 신규 사업을 조기에 선점**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·민간기업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베네수엘라 진출방안을 수립·추진해 나갈 계획임

참고 베네수엘라 플랜트 수주 및 추진현황

□ '03~ 수주실적 : 총 2건, 46백만불

(단위 : 백만불, 건)

구분	'06	'07	'08	'09	'10	누계
금액(건수)	21(1)	-	500(1)	23(3)		544(3)

'06년 : 발전 및 담수 프로젝트(효성, 21백만불)
'08년 : 엘 따블라쏘 03 유틸리티/오프사이트 프로젝트 (삼성ENG, 500백만불)
'09년 : Polinter El Tablazo 03 U&O Project 外 2건 (삼성ENG, 23백만불)

〈 수주를 추진중인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현황 〉

1 현대건설 뿌에르또 라 크루스 정유공장 개요

□ 사업 개요

○ 20만 Bpd 규모의 정유공장 설비 개선 공사 (25억불)

□ 추진 경과

○ 현물 Off-taking (10억$) + 금융 주선 (15억$) 조건으로 Exclusive 협력 추진 중
○ 4/25 주: 현장 Survey 및 Technical 미팅

□ 향후 계획

○ 현물 Off-taking: Trader 선정 및 세부 조건 협의
○ 금융 주선: 수은, 무보와 금융 주선 협의

2 포스코건설 STS일관제철소 Project 추진 현황

□ 사업 개요

○ 프로젝트명 : 베네수엘라 STS일관제철소 Project
○ 발 주 처 : ACEROS DEL ALBA
○ 부지위치 : 베네수엘라 Monagas 주 Temblador 시
○ 공사금액 : 발주처 예산 15억불
○ 설비용량 : 연산 15만 톤(용강기준)(열연/냉연제품)
○ 지분구조 : 쿠바 니켈과 베네수엘라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여 STS제품 생산, LatinAmerica역내시장에 판매

□ 추진 경과

○ '08.6.19~20 : 베네수엘라 기초산업부 차관과 협력방안 논의
○ '11.02.10 : 발주처 가격제출 요구
○ '11.03.15 : 예정가격제출

□ 향후 계획

○ '11.04월 이후 : 발주처, 사업예산승인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3 GS건설(가스 생산설비 프로젝트) 추진 현황

□ 사업 개요

○ 프로젝트 명 : 가스 메가 프로젝트
○ 총 계약 규모: 60억불
○ 발주처 : PDVSA 가스
- PDVSA(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)의 100% 출자 자회사
○ 추진 방식 : 금융조달을 동반한 수의 계약
○ 공기 : '11년 하반기 착공, '15년 완공
○ 현장 위치 : 베네수엘라 동북부 3개 지역 San Joaquin, Pirital, El Jose(별첨. 현장 위치 참고)
○ 설비 : 천연가스액(NGL) 추출 및 분리/생산 플랜트
- NGL 추출 플랜트
① San Joaquin Train IV(산 호아퀸 트레인) (1,000mmscfd)
② Pirital Train(삐리딸 트레인) I (1,000mmscfd)
- NGL 분리/생산 플랜트
③ El Jose Train(엘 호세 트레인) V (50,000b/d)

□ 추진 경과

○ 프로젝트 추진 경과
- '10년 하반기 : PDVSA - GS건설 수차례 상호방문 및 협의
- 상세 견적과 공사 방안 협의 및 MOU 서명 완료
○ 금융조달 추진 경과
- K-EXIM, K-SURE 등 한국 ECA, JBIC(일본)과 유럽의 ECA 등을 통해 금융조달 前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.

□ 향후 계획

○ '11년 7월 견적 제출, 9월 계약 예정
○ 금융조달 이전에 착공 예정 및 착공 1년 내 금융조달 완료 예정
○ 베네수엘라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, 현재 중동에 집중된 플랜트 수주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임.

<현장 위치>


VENEZUELA
Aruba
Netherlands Antilles
Grenada
Trinidad and Tobago
카라카스
(수도)
El Jose
150km
100km
100km
Pirital
San Joaquin
Venezuela
Guyana
Colombia
Boa Vista
Roraima